



성화론

거짓을 행하는 자들

1 기도 2 찬송 오직 믿음으로 (159쪽)

3 말씀 읽기 예레미야 9:3

3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4 말씀 이해하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죄를 낱알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고발하는 죄는 '거짓'입니다. 그들은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엄히 금합니다. 십계명 중 제9계명에서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으며, 주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요8:44). 이 말은 모든 거짓이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분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모든 속임수를 금하시며, 진실할 것을 명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성도가 버려야 할 첫 번째 것으로 거짓을 말하고(엡4:25), 빛의 열매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가르칩니다(엡5:9).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종종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거짓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구실로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과 어떤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알 때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진실하되 경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일들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때까지 선불리 판단하지 않으며, 함부로 소문을 옮기지 않는 것도 진실함에 속합니다. 주님은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거짓을 옮기는 것 역시 미워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거짓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

1. 이스라엘 백성은 □□을 말하고, □□□□을 알지 못했습니다(렘9:3).
2. 성도가 진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세상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4. 또한 성도는 진실하되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여러분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 진실하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생각해봅시다.

6 함께 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7 주기도문